KIET

해외출장보고서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2-134호

2012 한국/라오스 개발협력 포럼 참석

-김도훈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센터 김도훈 선임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2. 12. 12 (수) - 12. 16 (일) (3박 5일)

3. 출장지: 라오스 비엔티안

4. 출장 목적: 2012 한국/라오스 개발협력 포럼 참석 (발표)

5. 출장 수행 내용
   - 지식경제부 전략시장협력관실의 의뢰를 받아 KOTRA가 주도하여 조직한 라오스 투자조사단이 현지에서 라오스 기획투자부 및 상공부와 함께 개최한 "2012 한국/라오스 개발협력 포럼"에 2012년 12월 13일 (목) 참석하여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 - 경공업 발전 및 중화학공업화 -"를 발표하고, 2012년 12월 14일 (금)에는 투자조사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라오스 진출기업들인 메콩강 종합개발사업 추진자인 흥화건설 현장사무소, 라오스 증권거래소 (한국 증권거래소가 49% 지분 소유) 및 한국 주식시장 (KOSPI)에 상장한 KOLAO 그룹 (한국인이 설립하여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 등을 방문.

6. 출장의 성과
   - 한국 경제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동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발표하여, 라오스 현지 참가자 (기획투자부, 상공부 등의 공무원

및 비즈니스맨 등)들은 물론 한국 참가자들에게서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 나아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기회 및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함.

7. 2012 한국/라오스 개발협력 포럼 주요 프로그램

- 주요 참석자
  1) 라오스측: 기획투자부 차관 및 담당 사무관 (라오스 투자정책 설명), 상공부 외국인투자 담당 사무관 (라오스 투자승인 절차 소개)
  2) 한국측: 김창규 지식경제부 전략시장협력관, 배창헌 KOTRA 글로벌 정보본부장, 안유식 KOTRA 라오스 관장 및 국내 출장자, 정가연 주 라오스 대사관 참사관, 권영의 KOICA 라오스 관장, 한상문 서부발전 라오스 파견이사, 이현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장, 투자조사단 참여업체 대표 등
- 주요 프로그램
  1) 라오스 기획투자부 차관, KOTRA 배창헌 본부장, 지식경제부 김창규 국장 등 인사말
  2) 라오스측 발표: 라오스 투자정책 설명, 라오스 투자승인절차 소개
  3) 한국측 발표: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 (출장자 발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KOICA 관장), 한-라 전력부문 협력 방안 (서부발전), 한-라 정보통신 협력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투자상담회

8. 현지 진출업체 방문

- 홍화건설
  · 주요 면담자: 현장사무소장
  ·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메콩강 강변 제방공사 및 부대공사 사업으로 메콩강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관통하는 부분 12Km의 제방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부대공사로 추진한 공원개발 등이 라오스 비엔티안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라오스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사업
- 라오스 증권거래소
  · 주요 면담자: 박호정 라오스 증권거래소 부이사장
  · 한국 증권거래소가 49%의 지분을 받고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원하

고 있는 중. 현재는 상장회사가 두 개에 불과하고,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민간 증권회사도 두 개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2013년에만 여섯 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로 상장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업공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또한 이러한 라오스 증권거래소에 대한 투자 참여를 계기로 많은 후발 개도국들의 증권시장에 한국 증권시장의 각종 시스템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 KOLAO 그룹
  - 주요 면담자: 한명규 부회장
  - 전직 코오롱상사 베트남 지사 근무자인 오세영 회장이 설립한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으로 현재 오토바이 조립생산은 물론,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라오스 독점 판매법인, 삼성/LG 라오스 독점 판매법인, 골프장, 신문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한국 KOSPI에 상장하여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시가 총액이 7,000억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기업임.
  - 특이한 것은 KOLAO 그룹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통해 사업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에 과실송금을 하지 않고 현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2020년에는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10대 그룹으로 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임.